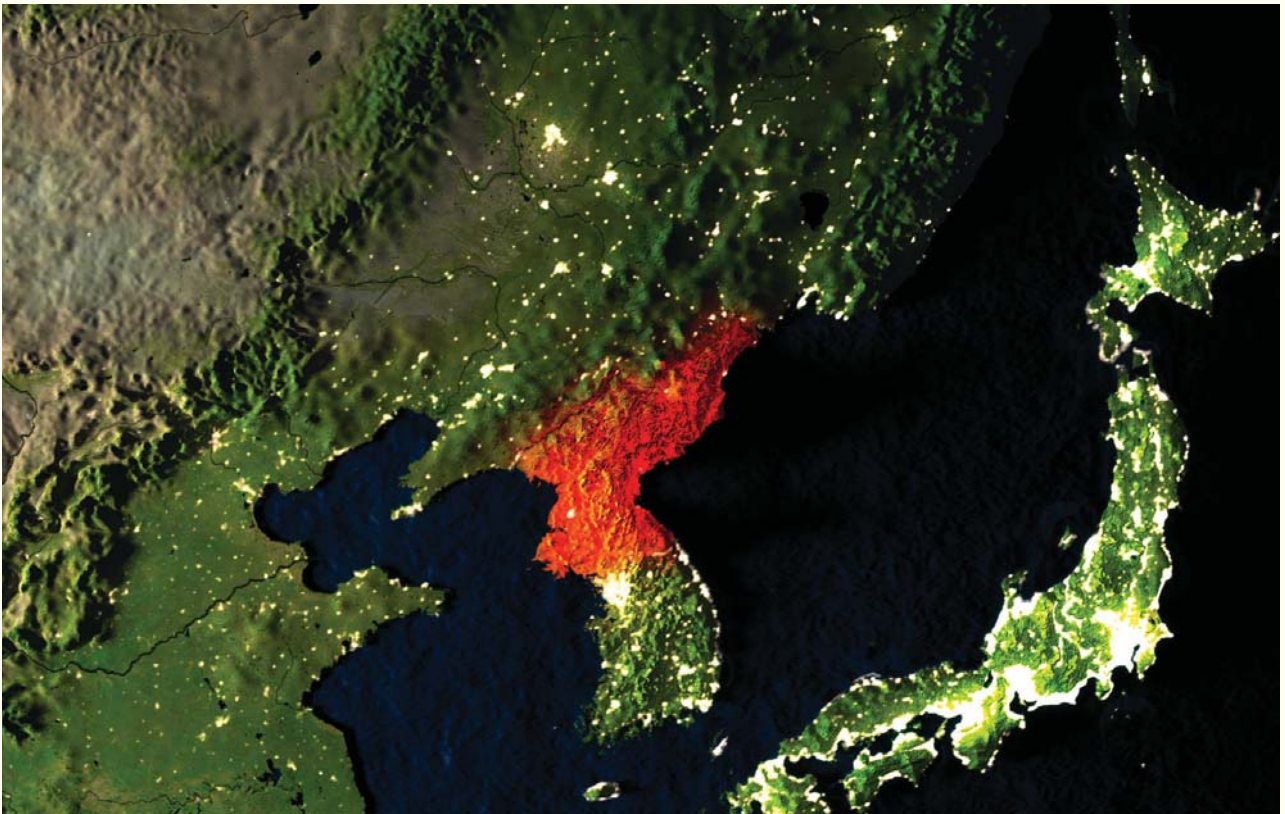


한국 국내정치와 국가안보 : 기독교인들 역무 중심

송대성 박사

(전 세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이사)



문제 제기

현재 한국은 국가경영 차원에서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그 난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난제 중 하나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위기’라는 난제다. 정치학에서는 “정치란 국가의 종합 경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국가를 하나의 기업체에 비유를 하면 정치란 그기업체를 총괄 경영하는 행

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종합경영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며, 결국 정치의 질에 의해 국가안보라는 과제는 성공 혹은 실패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 즉, 정치의 질이 좋으면 국가안보라는 주제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정치의 질이 나쁘면 국가안보는 나쁜 결실을 맺게 된다.

이에 한국의 안보상황을 국내정치적인 차원에

서 분석하고 분석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무의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치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치란 (1)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선명한 개념과 결행력(執行力) 보유, (2)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과 이적성 문화(利敵性文化) 세척(洗滌), (3)적성국과 동맹국의 분명한 구분 및 동맹국과 결속 강화, (4)국가안보역량훼손 행위 차단 및 안보 역량 증강 노력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는 정치체제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국가 내에 존속하고 있는 모든 다른 체제들의 색깔들이 그 정치체제의 색깔을 닮아간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과 실천적인 행동은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다.

국가안보의 현대적인 개념은 “국가안보는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그 국가가 지켜야만 할 가치들을 내·외부적인 위협들로부터 이상 없이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부는 국가최고통수권자를 필두로 행정부 각료들이 본 국가안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보유하고 그러한 국가안보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결연히 실천력을 발휘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은 단순히 “국민, 영토, 주권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상 없이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었으나 현대적인 개념은 “국가가 지켜야만 할 가치들 수호”와 “내·외부적인 위협”으로 그 의미들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의 국민, 영토, 주권 수호는 말

할 것 없고 그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들 수호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경우 지켜야만 할 가치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등이 있다. 또한 종전에는 외부적인 위협만 고려 대상이었으나 현대는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위협 모두 함께 고려대상이 되어있다.

정부가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적(主敵)’과 ‘이적성 문화’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이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혜로운 전략전술을 마련해야만 한다. 최고통수권자 및 행정부가 주적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하면 적의 직·간접 침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도래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이적성 문화란 대한민국을 해치고 적국(敵國), 즉, 북한을 이롭게 하는 속성의 문화를 의미한다. 이적성문화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는 문화다. 이적성문화는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건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다. 이적성문화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호이념으로 선택하고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의 정통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다. 그리고 분단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기적적인 국가발전을 비하하면서 은근히 북한의 역사를 칭송하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적성문화는 반미친북(反美親北)적인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대남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중심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다. 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제일 장애가 되는 요소는 한미동맹이

지혜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적성국과 동맹국을 분명히 구분하여
그 적성국을 최대고립시키면서
동맹국의 안보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좋은 정치력이다.

요, 미군의 남한 주둔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 목표달성의 최대 장애요소인 한미동맹을 붕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적성문화는 이러한 주장들을 동조하고 지지하는 반미친북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적성문화는 한국과 미국의 이간(離間) 혹은 한국의 관(官)과 민(民)을 이간질하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갈등이나 쟁점만 있으면 최대로 그 갈등과 쟁점들을 침소봉대 확산시키면서 양국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노력들을 한다.

이적성문화는 한국의 국방안보역량을 훼손시키려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외세간섭 없는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다. 한국안보역량증대를 방해함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군이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그 실수를 과장·확대하면서 한국군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적성문화의 특성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정부는 주적을 분

명하게 지정하고, 그 지정한 주적을 분명히 주적으로 다루면서, 자국사회에 존속·전파하려고 하는 이적성 문화를 척결한다.

국제정치에서 외교역량은 총을 안든 전쟁역량이고, 전투력은 총 든 외교역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국가의 안보역량은 <자국의 안보역량+타국의 안보역량>을 총괄하여 국가안보역량이라고 이야기한다. 타국의 도움이 필요 없이 자국의 안보역량만으로 적을 대적함에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혜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적성국과 동맹국을 분명히 구분하여 그 적성국을 최대고립시키면서 동맹국의 안보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좋은 정치력이다.

국가안보역량에 기여하는 좋은 정부는 국가안보역량 훼손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가안보역량 증강에 노력을 경주한다. 국가최고통수권자나 행정부가 국가안보적인 이슈를 정치화시키지 않고,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정부는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좋은 정부다.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기독교인들의 자세

이상에서 언급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치 4가지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차원에서 한국정치의 문제점은 (1) 국가안보에 대한 분명한 개념 및 결연한 수호의지 미흡, (2) 이적성문화 창궐에 대한 비조치(非措置), (3) 적과 우방에 대한 선명한 구분 미흡과 동맹국 미국과 결속 미흡, (4) 국가안보이슈 정치화→국방안보역량 훼손/무력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기 4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간단한 상황들을 각각 분석하고 그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역무들을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1) 현 정부 국가안보에 대한 분명한 개념 및 결연한 수호의지 미흡

현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선명한 개념과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기 위한 결연한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명한 국가안보 개념 보유라는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이 수호하여야만 할 가치가 어떤 가치들인가”에 대해 명쾌한 천명 결여와 이미 천명한 내용들 중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라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구체적인 한 가지 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인권 문제 특히, 북한 내 인권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생결단하는 결연한 의지표명과 실천적인 행동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는 북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모든 수단과 대응방안들을 총동원 사생결단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화/평화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 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선명한 개념미흡과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 결핍에 대한 정서가 국민들 정서로 보완되어야만 한다.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개념 보유와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 보유를 위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고 실천적인 행동들을 전개하여야만 한다.

한국의 기독교는 교회들 중심으로 국가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확한 국가안보 개념과 그 중요성,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 신앙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한국기독교의 사명 등의 주제들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고 신앙적인 가치관들을 확립해야만 한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정권차원의 안보교육이 아니다. 이러한 교육은 대한민국 생존과 신앙의 자유 차원에서 교육이고 가치관 확보를 위한 교육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먼저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정신무장을 하고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 한국사회 전체 국민들 가치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다.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는 체계적인 조직과 많은 수의 신도들을 보유하고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온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대한민국 구국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맞고있는 안보적인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 국가안보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독교가 큰 역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2) 이적성문화 창궐에 대한 비조치

현 정부의 국가안보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주적 북한’에 대해 분명한 주적인식을 갖고 대응하지 못하는 점과 ‘이적성문화’의 우리 사회 만연함에 대해 척결하려고하는 구체적인 개념 계획도 실천계획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정서는 ‘북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실체는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고 북한주도하에 공산화통일을 달성한 후 북한의 가치로 한반도 전역을 통치하려고 하는 지구촌에서 그 유례를 보기 힘든 잔혹한 독재병영국가”다.

현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객관적 실체 인식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이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라는 은근한

정서를 보유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인식회피 혹은 인식의 미흡함 때문에 모든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하는 국민들과 불량국가 북한의 핵보유를 사생결단 차단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정서와 엇박자를 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우리사회의 이적성문화는 그 본원(本源)이 북한이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개념보다는 ‘북한이 우리의 형제·동포’라는 개념에 몰입되어 있는 현 정부는 이적성문화가 대한민국 수호에 얼마나 손상을 끼치며, 국가안보역량을 얼마나 훼손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이적성문화 창궐을 정치적인 목적에 연계시키기도 한다. 현 정부의 이적성문화 척결의지 미 보유/미흡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는 ‘대한민국 주적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실체인식과 ‘한국사회 이적성문화 창궐 척결·세척 노력’을 주제로 삼고 우선 교회중심으로 기독교인들 신념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북한 중심 한반도 통일과 이적성 문화 한국사회 창궐은 기독교 문화의 척결·세척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와 이적성문화는 반기독교 이념이요 반기독교 문화다. 한국사회에 이적성문화 세척을 위해 우선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신념을 보유하고 그 신앙적인 신념을 한국사회에 확산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함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야만 한다.

(3) 적과 우방에 대한 선명한 구분 미흡과 동맹국 미국과 결속 미흡

현 정부는 적대국과 준적대국,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이라는 점에서 미흡함이 있

다. 현 정부는 주적대국 북한을 확실한 적대국으로 다루지를 못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적 관 및 국가 안보관에 혼선을 초래케 하고 있다. 또한 군인들로 하여금 군 전력에서 중요한 요소인 ‘적에 대한 적개심 고취’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국민이나 군인들의 안보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적필살(見敵必殺)”, “전쟁필승(戰爭必勝)”이라는 신념적인 다짐인데 “북한은 형제·동포임”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대적관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유케 한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대적관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남조선을 괴멸시키고 공산화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준적성국 중국을 명확한 준적성국으로 다루지 않음으로 인해 중국의 오만함과 동맹국 미국의 섭섭함을 야기시키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안보 차원에서 특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한미동맹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준적성국이다.

현 정부는 동맹국 미국이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에 얼마나 크나 큰 기여를 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한국지원이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국 결속이 얼마나 한국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이 미흡하다. 이러한 현 정부의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한 인식미흡은 현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 간 상당한 엇박자를 보이면서 한미일 3국 공조에서 ‘한국 소외(Korea Passing)’란 신조어를 생성시키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분명한 주적이고, 중국은 안보상 한국의 준적성국이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필수 보은국(報恩國)임”에 대해 신앙적 인식을 해야만 한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자신들 인식에만 끝나지 말고 한국사회에 본 신앙적 인식을 확산시켜야만 한다.

(4) 국가안보 이슈 정치화 → 군사안보역량 훼손/축소

국가안보역량은 차단역량(Deterrence Power)과 보복역량(Retaliation Power) 두 가지로 구분된다. 차단역량은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국가적인 재앙을 실제로 재앙이 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역량이다. 보복역량은 일단 적이 도발을 하는 경우 그 도발에 대해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갚아주는 역량이다. 현재 한국의 안보역량은 두 가지 역량 다 심각한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는 한국의 안보역량은 차단역량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고 핵으로서 남한을 공격해오는 경우 재래식 무기들만으로 무장되어있는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국제사회는 대화/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였으나 철저히 실패하였다. 그러한 어리석은 방안은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들이 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화/평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핵에 대한 보복역량은 핵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국제정치학에서 한 상식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한국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안보 이슈는 정치화되어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 이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 정부의 심

각한 문제점은 국가안보이슈들을 정치화하였고 그러한 이슈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가 사병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다. 현대 첨단 병기들에 대한 숙련기간 장기소요라든가 북한군인들 10~12년 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시 사병복무기간 단축은 실제 실천해서는 안 될 주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동맹 결속 이완→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한국의 많은 안보전문가들과 예비역 장교들과 장성들은 심각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안보이슈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국가안보이슈 정치화로 인한 국가안보역량 훼손은 북한의 무력 공산화통일에 기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반도 공산화통일은 한반도에 기독교 말살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은 한국안보역량 훼손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안보역량 훼손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개념 설계도와 실천설계도를 작성하여 한국안보역량 훼손 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글 | 송대성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 정치학과 국제정치학 박사이다. 세종연구소장과 국가정보화회장을 역임하였고, 지금은 미래한국 편집위원과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로 있다.